


| | | | | |
|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|
|  | 보도자료 | 2026. 6. 9.(화) 배포 즉시 보도 가능 | | |
| 농업기술원 | | 농업디지털센터장 | 김태우 | ☎ 760-7250 |
| | | 데이터분석팀장 | 유정호 | ☎ 760-7261 |
| | | 홍보담당자 | 양지순 | ☎ 760-7514 |

제주DA, 농업현장 체감형 디지털 서비스로 고도화

- 농업기술원, 6월 8일 제주DA플랫폼 고도화사업 중간보고회 개최 -
- 유관기관·전문가 한자리에...제주농업 디지털전환 현황 점검 -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(원장 김태균)은 지난 8일 농업디지털센터 회의실에서 ‘제주농업 디지털기반 영농지원시스템 고도화’ 사업 중간보고회를 열고, ‘제주DA’ 플랫폼 고도화와 현장 적용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.
 - 보고회에는 농업분야 유관기관과 용역 수행업체, 도 디지털혁신과, 농축산식품국,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서비스 개선 및 현장 적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.
- 이번 사업은 제주농업 디지털전환 1단계에서 구축한 농업데이터를 농업인이 실제로 체감하는 디지털서비스와 행정·관측 디지털체계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.
 - 주요 내용은 △보조금 및 농업·농촌 전수조사 등 정책사업 데이터 연계 △농업부문 업무·민원 연계 서비스 △재해예보 모델 개발 등 통계 분석정보 확대 △해충 예찰·예보 기능 강화 △감귤원 재식주수 및 감귤 관측조사 자동화 모델 고도화 △일 단위 농업경영체 연계를 통한 농업인 편의 증대 등이다.
 - 이번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약 60%로, 오는 10월 완료를 목표로 한다.

- 일부 과업은 이미 서비스 단계에 들어섰다. 정책사업 데이터 연계 확대 과정에서 농업 정책수당 비대면 신청서비스를 구축해 농업인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.
- 농민수당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은 비대면 신청·검증 서비스가 구축돼 농업인 260여 명이 온라인으로 신청과 검증 절차를 마쳤다. 방문 신청 중심의 농업인 지원사업을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.
- 오는 10월까지 미생물 공급 신청·관리, 토양검정 의뢰, 영농 교육 신청 분량까지 확대해 농업인 중심의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- 제주DA 플랫폼 현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‘제주DA 파트너스’도 운영하고 있다.
- 노지감귤, 월동무 등 주요 작물재배 농업인 200여 명이 참여하는 ‘제주DA파트너스’를 중심으로, 오는 7월부터 권역별 원탁회의와 사용자 앱 테스트를 진행하고, 수렴된 현장 의견은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에 지속 반영할 예정이다.
- 김태우 농업디지털센터장은 “제주DA는 농업인 서비스와 농정 업무를 연결하는 디지털농정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”며 “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는 기능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농정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